

칼빈의 영성: 칼빈의 금욕주의와 신비주의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his mysticism and asceticism

신경섭(Shin Kyoung Soub, 한남대학교 강사)

초고

우리는 칼빈에 대해서 두 가지 초상화를 그려볼 수 있다. 첫번째 초상화는 칼빈을 조직신학자 및 교리신학자로서 그려내는 것이다. 이것은 칼빈 이후의 칼빈주의가 그를 그려낸 초상화이다. 이런 측면에서 칼빈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는 일반적으로 '영성'을 취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초상화는 칼빈을 철저한 성서신학자로 이해하는 것이며, 많은 고난과 아픔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으로 그려내는 것이다. 전자는 칼빈 자신이 아니라 후대의 칼빈주의에 의해 채색된 모습, 칼빈주의가 그려낸 칼빈이다. 그리고 후자는 삶의 아픔 속에서 불안에 떨며 그토록 다윗과 자신을 동일시하였던 역사적인 칼빈을 그려내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한 하나님과의 영적 체험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인물을 화폭에 담아내는 것이다. 이런 후자의 입장에서 칼빈을 만나볼 때, 그는 지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경험을 중시하며 감정과 만남, 성령의 역사하심과 영성훈련에 큰 무게를 두었던 인물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칼빈의 영성을 말하게 될 때, 우리는 가톨릭적인 영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게는 중세의 가톨릭적인 영성을 극복하는 칼빈의 금욕주의와 신비주의를 읽어볼 수 있게 된다.

칼빈의 금욕주의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 나타난다. 자기 부정은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초월하는 방식이다. 그렇다고 자기를 부정함으로써 저 세상적 수도원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영성이다. 이처럼 칼빈이 자기 부인(self-denial)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아픔과 고난의 바닥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인생의 허무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족을 한없이 느낌으로 인해 겸허함과 겸비함을 깨닫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부정이란 자기 구원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부정이라는 자기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의 재물과 모든 만물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칼빈의 영성은 전인적인 영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칼빈의 신비주의 영성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으며,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축복과 사랑의 선물을 받게 된다. 칼빈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의 결혼관계'를 통해서 영성을 설명하였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신자들은 믿음의 확신을 체험하게 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며 칭의의 선물을 받게 된다.

이러한 칼빈의 금욕주의 영성과 신비주의 영성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성령론을 다루고 있는 『기독교강요』 3권이다. 그러나 칼빈은 3권의 제목을 성령론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금욕주의 핵심인 자기 부정이 바로 칼빈의 성화를 다루는 장이며, 신비주의는 3권 중에서 믿음과 성화 그리고 칭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칼빈의 영성은 외적으로는 기독교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면적으로는 성령론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됨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기와 의 올바른 관계는 자기 부정을 통한 자기 극복과 자기 초월이며, 이 자기 초월은 이웃과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 만물과 바른 관계를 지향하게 만든다. 아울러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확신있게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칼빈의 영성은 전인적이며 현실적이며 통합적인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검색어

칼빈의 영성, 칼빈의 금욕주의, 칼빈의 신비주의,
칼빈의 두 가지 초상화

I. 들어가기

목회에 몸담은 지가 어느 덧 15년이나 되었다. 무엇이 목회인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까지 이 목양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믿어진다. 물론 목회가 무엇이나고 질문을 받는다면 나름대로 대답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늘 마음 한 구석에는 무엇인가 비어있는 것과 같은 공허한 마음이 떠나지 않았다.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이 비밀을 풀기 위해 상담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상당한 기간동안 일반상담을 공부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일반상담과 목회상담을 공부하고 배운 것을 실천해가면서 또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고 하는 느낌이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다. 목회상담을 배우는 것이 일반상담과 거의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목회상담은 목회와 상담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실천신학이다. 즉 신학과 심리학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통합된 학문이기때문에, 어떤 면에서 신학과 과학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

니고 있다. 이런 면에서 목회상담은 태생적으로 정체성의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갈등 속에서 시작한 것이 영성에 대한 공부였다. 적어도 기독교 영성이 기독교상담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 많은 그룹과 인종들 그리고 단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¹⁾ 우리의 영성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²⁾

현대 사회라는 배는 과학과 기술, 다양한 노동력, 세속화, 그리고 초월성의 상실을 야기시킨 모더니즘의 강을 지나서, 포스트모더니즘의 깊은 심연 속에 정박해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성과 물질, 그리고 개인 중심의 현대문명에 대한 반발이나 비판으로써 대두된 하나의 전반적인 문화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수도 있다. 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포스트모더니즘이 현대사회의 '세속주의'에 대한 비판적 극복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새로 대두되는 포스트모던의 종교현상 속에서 이성이나 체계보다는 '체험'이나 '영성' 혹은 '감성'을 강조하며, '개인'보다는 '공동체적' 삶과 실천을 중시하며, '교리'보다는 '관상'이나 '명상'을 통하여 초월성이나 내면적 깊이를 찾아나가는 데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서 특별히 개혁교회 영성의 원조인 칼빈의 영성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칼빈은 영성이라는 말 대신에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런 이유에서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인본주의적인 경향이 농후한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경건'이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의 개신교인들은 '경건'이라는 말을 실생활과는 간격이 있고 현실감각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

1) Nelson S. T. Thayer, 『영성과 현대목회』 이윤복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2), p. 12.

2) *Ibid.*, p. 38. *Spirituality and Pastoral Care.*

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라이스(H. Rice)는 경건이라는 말이 편협하게 판단적이며 독선적인 것으로 들리며, 창조된 질서 속에서 기쁨을 찾길 두려워하는 대신에, 엄격한 규칙 준수에 대한 확고한 의무감으로 가득 찬 결심을 선택하는 종교적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³⁾ 그러나 칼빈이나 그의 동시대인들에게는 불쾌한 함축이 전혀 없는 훌륭한 단어였다. 고전 라틴어에서는 *pius*와 *pietas*라는 단어는 자녀들과 부모님들과의 관계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로마 가문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하고 존중하며 순종하며 사랑하도록 되어 있다. *pietas*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간의 사랑과 보호를 의미한다.⁴⁾ 그래서 칼빈은 이 단어 안에 아들의 순종이라는 고전적인 부자관계가 나타나 있다고 보았다. 즉 *pietas*는 성부 하나님을 양자이자 그리스도의 양자인 우리들의 바람직한 삶의 양식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다.⁵⁾

교회사를 통해서 영성의 흐름을 짚어볼 때, 중세교회의 가톨릭 영성 전통은 금욕주의와 신비주의로 대별된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II장에서는 칼빈의 영성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를 고찰해 볼 것이다. 이어서 III장에서는 칼빈의 금욕주의와 신비주의를 고찰해 볼 것이다. 칼빈의 금욕주의와 신비주의는 그의 영성을 이해하는데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칼빈이 중세의 실재론의 토대 위에서 형성된 중세의 금욕주의와 신비주의를 어떻게 극복했으며, 자신의 영성에의 길을 어떻게 구조화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H. Rice. 『개혁주의 영성』 황성철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p. 58. *Reformed Spirituality*.

4) F. L. Battles, 『칼빈이 생각했던 경건』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p. 29. *John Calvin, The Piety of John Calvin*.

5) *Ibid.*, p. 30.

II. 칼빈의 두 가지 초상

우리는 칼빈의 초상을 두 가지로 그려볼 수 있다. 첫 번째 초상화는 칼빈을 조직신학자 및 교리신학자로서 그려내는 것이다. 이것은 칼빈 이후의 칼빈주의가 그려낸 초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칼빈을 이해하려고 할 때, 칼빈은 일반적으로 ‘영성’을 취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초상은 칼빈을 철저한 성서신학자로 이해하는 것이며, 많은 고난과 아픔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으로 그려보는 것이다. 부스마(W. Bouwsma)는 칼빈이 일반적으로 ‘영성’을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후일의 칼빈주의를 다룰 때 사용된 관념, 즉 그를 조직신학자 및 교리신학자로서 이해하려는 관념의 결과라고 하였다. 칼빈은 자신을 철저한 성서신학자로 생각했고, 또 그는 인간의 모든 신학 작업과 관련하여 이것이 어떤 의미를 함축하는지를 잘 알았던 인물이었다.⁶⁾ 정승훈도 이러한 인상은 칼빈 자신이 아니라 후대의 칼빈주의에 의해 채색된 모습이라고 하면서, 칼빈은 항상 자신을 성서신학자로 이해하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한 하나님과의 영적 체험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인물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⁷⁾ 실제로 칼빈의 중요한 저서 『기독교 강요』와 그의 주석들 그리고 그의 편지들을 검토해 보면, 그가 자신의 모든 저작에서 마음 속에 두었던 우선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성실하게 살려고 분투하는 신자들을 도우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⁸⁾

부스마(W. Bouwsma)는 칼빈이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 안에는 두

6) William Bouwsma, 『기독교영성』 II, 엄성욱 역, (서울: 은성, 1993), p. 460.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Jill Rait · Bernard McGinn · John Meyendorff edited., *Christian Spirituality*

7) 정승훈, 『종교개혁과 21세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p. 155

8) H. Rice. 『개혁주의 영성』, 황성철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p. 16. *Reformed Spirituality*.

칼빈이 동일하게 공존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철학자요, 합리주의자요,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대표되는 절정기의 스콜라 전통 속에 있는 스콜라 학자요, 고정된 원칙들의 사람이요, 보수주의자이다. 이 칼빈은 정태적 정통주의적인 기독교를 지향하고 이해성과 질서와 확실성을 매우 열망하는 사람이었다.⁹⁾ 반면에 다른 칼빈은 수사학자요, 인문주의자요, 오캄의 윌리엄의 추종자들 식의 회의적 신앙주의자요, 기회주의자로 여겨질 만큼 융통성이 있는 자요, 자신의 뜻과는 달리 혁명가였다. 이 칼빈은 지상의 덧없는 것에서 이해성이나 질서를 찾지 않았다. 왜냐하면 칼빈은 그런 것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필요로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대신 칼빈은 존재의 중심에 있는 역설들과 신비를 예찬하는 경향이 있고 이론보다는 경험과 실천의 우위성을 주장하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상당한 관용성을 가지고 있었다.¹⁰⁾ 살아 있는 역사적 칼빈은 무엇보다도 이 두 경향을 결합시키는 정도에 따라 16세기 사람으로 나타난다.¹¹⁾

라이스(H. Lice)는 개혁주의 전통은 모두 이 두 형태의 칼빈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¹²⁾ 그런데 지금까지는 첫 번째 유형의 칼빈주의자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해왔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종교적 경험에 대해 별 관심이나 관용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칼빈과 개혁주의 전통의 두 번째 측면은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묘사된 것이다.

칼빈의 상이한 두 가지 해석의 주요 근원은 '지식'이라는 단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칼빈은 거듭해서 하나님과 자아에 대한 지식에 관해 글을 썼다. 그는 이러한 두 종류의 지식의 관계를 중심 주제로 삼아서

9) W.Bouwisma, 『칼빈』, 이양호·박종숙 역, (서울:나단, 1993), p. 540.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

10) *Ibid.*

11) *Ibid.*, p. 541.

12) H. Rice, *op.cit.*, pp. 34-35

『기독교 강요』를 구성하였다.¹³⁾ 지금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은, 칼빈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어떠한 의미에서 사용했느냐고 하는 점이다. 라이스(H. Lice)는 칼빈이 ‘알다’라는 단어를 훨씬 더 경험적인 측면에서 사용했다고 한다.¹⁴⁾ 즉 기독교 강요 첫 장에서부터 계속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며,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안다’는 말은 적어도 칼빈에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더 깊은 차원을 지적하는 것이다.¹⁵⁾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칼빈주의 전통에서 거의 사라져버렸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은 중세기 스킨라주의처럼 철저하게 초월적이고 불변하는 분으로 묘사한다. 이러한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허공에 떠 있는 냉엄한 초월자에 불과하다. 오히려 칼빈의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의인의 고난을 보면서 슬퍼하시고 고통 당하시고, 이로 인해 마음과 뜻을 바꾸시는 그런 거룩한 사랑이 아닌가?¹⁶⁾ 따라서 칼빈에게 있어서 목회는 영혼을 돌보는 일이며, 목회자란 영혼의 안내자를 의미한다. 로마카톨릭의 지나친 형식적인 의식적인 절차와는 달리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자유와 양심의 성찰을 중요하게 여겼고, 복음과 믿음을 통한 개인의 영적 성장과 권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¹⁷⁾

III. 칼빈의 금욕주의와 신비주의

신약성서에는 세상과의 분리와 세상 속에서의 참여를 교훈하는 두 가지 다른 경향이 있다. 전자는 자기 부정, 금욕적 삶, 이 세상보다 저 세

13) *Ibid.*, p. 34.

14) *Ibid.*, p. 58.

15) 정승훈, 『종교개혁과 21세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p. 157.

16) *Ibid.*, p. 156.

17) *Ibid.*, p. 152.

상,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강조하며, 바울 서신이 이를 대변한다. 후자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 태도, 창조 질서 내의 하나님의 활동, 행동하는 영성을 강조하며, 이를 대변하는 것이 마태복음 특히 산상 수훈이다. 이 중에서 세상과의 분리를 강조하는 부정적 영성은 수도원 운동과 신비주의운동을 통해 고대 및 중세교회에 널리 확산되었다.¹⁸⁾ 영성(spirituality)이란 말은 본래 로마 가톨릭교회와 동방 정교회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며, 금욕신학(혹은 수덕신학 ascetical theology)과 신비신학(mystical theology) 또는 수덕적 영성과 신비적 영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금욕과 신비라는 두 개의 다른 초점을 가진 영성신학이 형성되었던 것이다.¹⁹⁾

1. 칼빈의 금욕주의

금욕신학은 일반 기독교인들의 영성훈련을 다룬다. “금욕”(ascetical)이란 희랍어 askesis에서 나왔는데, 육상 경기자의 연습이나 훈련을 뜻

18) <http://sgti.kehc.org/data/person/mok/evangelical-theology/5.htm>

19) U. T. Holmes, III 『목회와 영성』 김의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p. 50. *Spirituality for Ministry*. U. T. Holmes는 영성신학에 있어서 전통적인 금욕주의신학과 신비주의 신학을 각각 도구적인 그리고 종착적인 이미지(instrumental and terminal images)라고 말하고 있다. 즉 금욕주의와 신비주의는 영성의 과정과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덕신학은 기독교훈련의 실천, 즉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목격하고 사용하는 수단과 관계를 갖고 있다. 금식, 규칙적인 기도시간, 묵주 사용, 성서 읽기, 그리고 공휴의 행위들은 기독교 “경주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향해 자기의 삶을 개방하는 데 도움되는 훈련의 본보기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훈련의 의도 안에 있는 도구적 이미지가 된다. 신비신학은 개인과 신과의 합일 경험을 묘사하는 것과 관계를 갖는데, 그것이 직접적이든 중개를 통한 관계이든 상관없다. 어린양의 혼인, 휘황찬란한 압후, 심연 앞에서 적나라하게 된 영혼,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의 뜨거워짐이란 표현들은 기도의 목표를 서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종착적 이미지들인데, 훈련자가 의도한 목적에 들어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 p. 51

하며, 그 강조점은 기독교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 스스로를 개방할 수 있는 행위에 두고있다.²⁰⁾ 그런데 수련이란 그것이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지 않는 한 존재의 의미가 없다. 즉 수련이란 본질적으로 하나의 수단이다. 금욕수련은 그 단어의 보편적인 의미 속에서 영적 수련과 결부되고 있지만, 금욕수련이 그 자체로서 영적인 것은 아니다.²¹⁾ 에르나르드 반드 빙클(Erna van De Winckle)은 기독교적 금욕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독교적인 금욕수련은 자기를 통제하는 기술, 자신의 영과 육체를 제어하는 능력을 얻게 하는 기술이 아니다. 더구나 영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기술도 아니다 ...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이 각인되어 있으며, 우리들에게 자기-비움과 자기-이탈을 요구한다. 하나님 없이 금욕수련을 시행할 경우 사람들은 금욕에만 몰입하게 될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되고 말며, 거의 언제나 이기주의나 교만에 빠지게 된다.²²⁾

방델(F. Wendel)은 칼빈에게 금욕주의에서 신중하게 등급화된 훈련과 관련되어 있는 수도원적 개념을 설명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²³⁾ 두메르그(E. Doumergue)는 칼빈의 금욕주의에 대해 다루면서 그에게는 수도원적 금욕주의 전통이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⁴⁾ 비치

20) U. T. Holmes III, *op.cit.*, p. 50.

21) Erna van De Winckle, 『용의 심리학과 기독교 영성』 김성민 역, (서울: 다산글방, 1996), p. 43. De l'inconscient 'a' Dieu: Ascese Chretienne et psychologie de C. G. Jung.

22) *Ibid.*, p. 44.

23) F. Wendel,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김재성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p. 295.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24) E. Doumergue, "칼빈: 모방자인가 창조자인가", W. P. Armstrong edited, 『칼빈의 종교개혁사상』 한국칼빈주의연구원편 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6), p. 49. *Calvin and the Reformation.*

(Waldo Beach)도 칼빈이 서구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칼빈의 '세계내적(世界內的)인 금욕주의'는 역사상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²⁵⁾

필자는 칼빈의 금욕주의를 1539년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출판된 라틴어판 기독교강요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기독교인의 삶에 관하여'(성화론)를 중심으로 칼빈의 금욕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칼빈은 성화론을 1539년 판 『기독교강요』 마지막에서 다루다가 1559년 강요 최종판에서는 『기독교강요』 3권 성령론("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어떤 결과가 따르는가?")에서 신앙과 회개와 중생 다음에, 그리고 칭의론을 취급하기 전에 '기독교인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칼빈은 '기독교인의 삶에 관하여'에서 기독교인의 삶의 형성에 관한 문제, 즉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주고 안내해줄 수 있는 질서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²⁶⁾ 첫째는 의를 사랑하는 것이며, 둘째는 삶을 확립하는 것이다. 첫째 삶의 질서내지 행동 지침은 기독교인의 삶의 동기로서²⁷⁾ 거룩에의 부르심이다. 문제는 우리 마음 속에 의(거룩)를 사랑하도록 강요하지만 우리가 천성적으로 결코 의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²⁸⁾ 칼빈은 거룩이란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²⁹⁾ 그 근거로서 두 가지로 제시한다.

25) W. Beach, H. R. Niebuhr, 『基督教倫理學』 김중기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p. 238. *Christian Ethics*,

26) John Calvin, F. L. Battles ed. 『칼빈의 경건』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p. 76. *The Piety of John Calvin*. 칼빈은 기독교인의 삶의 형성 문제를 기독교인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질서, 기독교인의 행동 지침, 성경이 가지고 있는 행동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27) *Ibid.*, p. 77.

28) *Ibid.*

29) *Ibid.*, p. 79.

우리 주님이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록해야 한다고 훈계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선한 행위의 기초가 어디 있겠는가?(레 19:2; 벰전 1:15f) 여기에 주님은 또 하나의 이유를 덧붙인다. 길을 잃어버린 채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양 떼들처럼 우리도 미궁과 같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불러모아 자신과 연합하게 하셨다.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떠는 끈 기록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³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을 요청하고 계시고 주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한다면 기록은 우리의 소명의 목표요, 우리가 항상 바라보아야 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³¹⁾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마땅히 기록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기록의 완전성이라는 표준에 비추어 본다면 모든 인간들이 교회로부터 추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완벽에 도달한 자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큰 진보를 이룩했다고 자부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별로 진보한 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³²⁾ 그러나 기록에의 회복은 단시일 내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지속적인 뉘우침과 참된 경건의 훈련을 멈추어서는 안된다.³³⁾ 칼빈은 기록에의 성화의 과정을 삶의 여정으로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은 너무나 약해서 흔들리고 절뚝거리다가 결국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발걸음을 내디디자. 일단 시작한 여행을 중단하지 말

30) *Ibid.*, pp. 77-78.

31) *Ibid.*

32) *Ibid.*, p. 81.

33) 박대인, 「초대와 중세의 영성생활의 특징」, 『목회전문화와 영성』 (서울: 연세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 1984), p. 358.

고 끝까지 추구하자. 이와 같이 연약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자는 날마다 조금씩 나아가다가 마침내는 고향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 우리는 평생동안 그 선함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해방되는 날 우리는 그 완전한 선함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그 날에 하나님은 우리와 고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³⁴⁾

두 번째 삶의 질서내지 원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자기 부정으로 설명한다. 첫 번째 우리가 내디디야 할 발걸음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물러나 우리의 사고능력 전체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투입하는 것이다. '섬긴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자율적 의미를 상실한 인간의 사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에게로 돌이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³⁵⁾ 두 번째 생활 원리인 자기부정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의 악덕들의 세계가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을 무시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악덕들의 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³⁶⁾

모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누구든지 쉽게 자기 영혼을 헛된 생각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다. 이것은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간절히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비고, 마 16:24). 일단 자아의 거부가 인간의 마음을 차지하기만 하면 자만, 교만, 허세가 사라지고 탐욕, 무절제, 사치, 쾌락 등 자아를 사랑할 때 뒤따라오는 다른 악덕들이 사라지고 만다.³⁷⁾

34) John Calvin, *op.cit.*, pp. 82-83.

35) *Ibid.*, p. 84.

36) *Ibid.*, p. 86.

37) *Ibid.*, p.85.

베틀즈(F. L. Battles)는 칼빈의 자기 부정을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이라고 결론을 내린다.³⁸⁾ 두메르그(E. Doumergue)도 칼빈의 자기 부인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목표를 성취하는 수단이며, 자기 부정은 금욕주의로써 금욕주의의 시작이자 근원이다. 그러나 결만 보고서 칼빈주의적 자기 부인을 부정적인 의미로만 보려는 사람은 확실히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칼빈주의적 자기 부정은 긍정적이고 본질적이며 거듭 긍정적인 것이라고 하였다.³⁹⁾ 이처럼 칼빈은 자기의 자신에 대한 관계를 자기부인으로 이해하면서, 자기부인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관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의 자기 부정은 저 세상적 수도원주의가 아니다. 칼빈이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인류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⁴⁰⁾ 박대인도 칼빈의 자기 부정은 성령 안에서의 자기 부정의 경건이요, 그 자기부정은 신비주의자들의 자기 탈피와는 다른 것으로서 신과 그리스도와 이웃에게 정위된 자기부정인 것이라고 하였다.⁴¹⁾ 칼빈은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이웃들을 위한 일이며 또 부분적으로는(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⁴²⁾고 하였다.

칼빈은 자기부정을 이웃과의 관계로 확대시키면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기독교인은 먼저 자기 중심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우리 마음 속에서 자연적인 감정들을 비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명령들을 지킬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우리들 자신에 대한 사랑에 너무 집착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을 더 높여야 하며 우리 자신과 비교해서 모든 다른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우리

38) F. L. Battles, "서문", John Calvin, *the Piety of John Calvin*, p. 20.

39) E. Doumergue, *op.cit.*, p. 50.

40) *Ibid.*, p. 51.

41) 박대인, *op.cit.*, p. 358.

42) John Calvin, *op.cit.*, p. 86.

모두는 자기 자신에게 아첨하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의 왕국을 형성해간다... 자기를 사랑하고 높이는 이 치명적인 질병은 성경의 명령과도 같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뿌리째 뽑아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⁴³⁾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과 근거를 말한다. 첫째 감정의 노예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허물에 사로잡히지 않고 친구로서 친절하고 온화하게 수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이 주어져 있다. 허물들을 바라보지 말고 간과하라. 허물들을 아첨하는 마음으로 감싸라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범한 사람을 능욕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에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해야 하는 한 사람 한사람에 대해 예의바르고 온화하게, 그리고 상냥하고 우정어린 태도로 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겸손과 타인 존중의 태도 이외에는 그 어떤 태도로도 진정으로 온화한 인간이 되기 어렵다.⁴⁴⁾

둘째 칼빈은 자기 중심적인 감정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묵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탁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를 감동시켜 그들을 사랑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돌려서 그들의 온갖 허물을 보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⁴⁵⁾ 에르나르드 반 드 빙클(Erna van De Winckle)은 기독교적인 금욕수련은 결코 초인을 겨냥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이 각인되어 있으며, 우리들에게 자기 비움과 자기 이탈을 요구한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금욕수련을 시행할 경우 사람들은 금욕에만 몰입

43) *Ibid.*, pp. 86-87.

44) *Ibid.*, p. 88.

45) *Ibid.*, p. 92.

하게 될 위험이 있다. 그럴 경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되고 말며, 거의 언제나 이기주의나 교만에 빠지고 말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⁴⁶⁾ 이런 시각에서 칼빈은 이웃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바라보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서 그에게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그들의 장점만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우리에게 훈계한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아야만 한다... 만일 그가 '낮선 사람' 이라면 우리는 먼저 그와 친숙해질 의무가 있다. 비록 그가 조롱을 받을만하고 하잘 것 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그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를 존중해야 한다.⁴⁷⁾

칼빈은 자기부정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 자기부정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정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우리 자신이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의 지시를 따라 우리 자신들과 모든 우리의 소유물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 마음의 감정들을 길들이고 명예를 씌우는 작업이 필요하다.⁴⁸⁾ 어떤 면에서 이 감정들은 세상 지향적으로 중독되어있는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미친 듯이 날뛰는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타인의 인정과 명예를 얻고자 애쓰는 것, 권력과 막대한 부를 추구하는 것, 허세와 장엄함을 조성해주는 듯이 보이는 것들을 쌓는 것-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걱정들이다. 반면에 우리는 얼마나 가난을 두려워하고 증오하는가, 비천한 가문에서 출생한 것과 수욕당하는 일은 또 얼마나 싫어하는가, 우리는

46) Erna van De Winckle, *op.cit.*, p. 45.

47) John Calvin, *op.cit.*, p. 91.

48) *Ibid.*, p. 93.

있는 힘을 다해 이런 것들로부터 빠져나가려고 애를 쓴다. 이 같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계획에 따라 자신들의 생애를 꾸려가는 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쉴 수 없는 영혼들인가를 보여준다. 그들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으며 모든 면에서 자신들을 괴롭힌다.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들의 야망과 탐욕이 그들을 집어삼킨다. 그들의 탐욕은 궁핍과 멸시당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보자는 것이다.⁴⁹⁾

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축복에만 의지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의무는 지나친 탐욕을 품고 부와 명예를 동경하면서 우리 자신의 기술, 근면, 인간의 호의, 행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⁵⁰⁾ 에르나르드 반 드 빙클(Erna van De Winckle)이 말한대로, 기독교적인 금욕수련은 그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도록 소원이 생기고, 그 소원이 수용되는 것이다.⁵¹⁾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소망대로 일이 되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성급함과 현재의 상태를 싫어하는 나쁜 성벽을 제어하는 기회가 온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⁵²⁾ 바로 이러한 삶이 칼빈의 형식상의 금욕적 비판주의이며, 심리학적으로 그의 강한 현실주의의 동기가 되는 것이며,⁵³⁾ 아울러 칼빈의 활기 있고 건강한 현세관을 보여주는 것이다.⁵⁴⁾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악하고 비뚤어진 방법을 통해 광적인 탐심을 가진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들을 열망하지 않을 것이

49) *Ibid.*, p. 94.

50) *Ibid.*, p. 95.

51) Erna van De Winckle, *op.cit.*, p. 45.

52) *Ibid.*

53) E. Doumergue, *op.cit.*, p. 68.

54) F. L. Battles, *op.cit.*, p. 20.

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그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설혹 번영의 축복이 그에게 찾아와도 그 번영은 그의 근면, 행운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반면 그에게 별다른 진보가 없고 오히려 후퇴하는 경우에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 적절한 재산을 향유하면서 사는 것만큼 인내와 절도를 잃지 않고 생활해 갈 것이다.⁵⁵⁾

이제부터는 칼빈의 금욕주의와 삶의 활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외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정은 삶의 활용을 부정하지 않는다. 전자는 후자의 원인이 되며, 실제로 칼빈에게서 자기 부정은 단순히 부정적이고 사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법칙을, 율법을 그리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들 중 하나의 존재를 쉽게 발견해낸다.⁵⁶⁾ 에르나르드 반 드 빙클(Erna van De Winckle)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금욕으로 초대한 것은 우리에게 모든 욕망을 억압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물질을 궁지에 몰아놓거나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⁵⁷⁾

먼저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살펴보자.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선적으로 깃들여있는 곳은 정신과 마음, 또는 영혼과 영혼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육체를 포함한 인간의 어느 부분에도 그 광채가 얼마만큼이라도 빛나지 않는 곳은 없다고 하였다.⁵⁸⁾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천막'이나 '감옥'일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성령의 전'이다. 즉 영혼의 각 부분이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이, 육체의 각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는 어떤 불꽃을 비추어주고 있는 것이다.⁵⁹⁾ 따라서 금욕주의 개

55) John Calvin, *op.cit.*, p. 94.

56) E. Doumergue, *op.cit.*, p. 67.

57) Erna van De Winckle, *op.cit.*, p. 45.

58) *Inst.*, 1:15: 3.

념이 육체가 천한 것이라는 경향을 띠는데 반하여 칼빈은 육체를 보살 피고 존중하는 개념으로 향한다.⁶⁰⁾

칼빈은 하나님의 지혜가 신체 구조에도 있어서도 드러나있다고 하면서 인간의 신체를 찬양하기까지 하였다. 즉 신체의 가가 부분의 관절, 균형, 아름다움, 효용 등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갈렌의 해부학적 기술과 같은 예리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체 자체가 너무나 오묘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그것의 고안자는 마땅히 기적을 낳는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⁶¹⁾ 이오갑도 칼빈은 ‘형상’을 육체에도 적용함으로써 육체가 가진 탁월성, 아름다움, 가치를 높이 평가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숨씨이자 형상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신들의 육체를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하였다.⁶²⁾

틸리히(P. Tillich)도 칼빈에게 있어서 세계는 추방의 장소이며, 육체는 혼의 쓸모없는 감옥이라고 하면서, 칼빈은 구약성서나 신약성서보다도 플라톤에 훨씬 가깝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삶을 증오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반대했다. 칼빈의 금욕적 태도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같은 식으로 금욕적 행위에 의해서 삶과 육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⁶³⁾ 즉 기독교 금욕주의는 육체를 부정하지도 창조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더구나 스토아 학파의 현자나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처럼 그들의 욕망을 모두 끊어버리고 절대 정적, 즉 무심(無心: apathie) 상태나 평정(atasaxie)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인간의 육체를 무시한다거나 육체의 즐거움과 마음의 만족

59) E. Doumergue, 『칼빈 사상의 성격과 구조』 이오갑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p. 83. *Le Caractere de Calvin*.

60) E. Doumergue, “칼빈: 모방자인가 창조자인가”, p. 59.

61) *Inst.*, 1:5:3.

62) 이오갑, 「인간론」, 『칼빈신학 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p. 177.

63) Paul Tillich, 『폴틸리히의 그리스도교 사상사』 송기득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4), p. 339.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을 멸시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이다.⁶⁴⁾

둘째, 세상에 대한 관점에는 부정과 긍정의 의미가 다 들어 있다. 땅 위에서의 생활이 쾌락과 은총과 감미로움으로 우리를 강하게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현세에서의 삶으로부터 뒤로 물러나 보아야만 한다.⁶⁵⁾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의 삶과 관련시켜 생각해 볼 때 인간의 상황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아는 것이 꼭 필요하다.⁶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이처럼 땅위에서의 삶을 조소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증오하거나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도 수없이 많은데 이것까지 조롱해서는 안된다. 만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커다란 배은망덕의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⁶⁷⁾

셋째,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들에 대한 칼빈의 생각은 어떠한가? 칼빈은 재물을 우리가 원하는 것(want)과 필요로 하는 것(need)에 균형을 맞추어서, 우리의 순례의 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바로 이 점이 칼빈의 진정한 금욕주의 성격을 잘 들어내는 것이기도 하다.⁶⁸⁾

우리가 세상의 재물들을 순결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

64) Erna van De Winckle, *op.cit.*, pp. 4-5.

65) John Calvin, *the Piety of John Calvin*, p. 114.

66) *Ibid.*, p. 115.

67) John Calvin, *op.cit.*, p. 115.

68) E. Doumergue, *op.cit.*, p. 52.

해서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일과 우리의 필요를 위한 일에 골고루 균형있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같은 균형있게 물질의 사용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시한 하나의 지침을 제시한다면, ... 우리는 세상의 재물들을 그 순례의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가 아닌, 그 길을 더욱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⁶⁹⁾

넷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 칼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창조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우리들의 소유와 재화들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감사함으로 사용하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음식물을 만들어 두신 목적은 우리의 필요와 아울러 우리의 쾌락과 여흥을 위한 것이 아닐까. 옷도 필요 때문만이 아니라, 때에 따라 알맞게 입도록 만드신 것이다. 풀, 나무, 과일 등도 주님이 제정하신 다양한 용도들 이외에도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 우리의 시각을 즐겁게 하며 그 향기를 통해 또 다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셨다(창 2:9).⁷⁰⁾

이를 위해 통제를 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굴러가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더욱이 어떤 이들은 자유라는 구실아래 모든 것을 육신에게 양보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화들은 우리를 위해 창조된 것이므로 그 안에서 그 진정한 창조자를 인식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감사함으로 극대화시켜야 한다.⁷¹⁾

이런 바탕 위에서 칼빈은 이 세상의 재물들을 사용하는 3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첫번째 규칙은 이 세상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마치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자처럼 세상에 대해 애착을 갖지 말라는 것이다.

69) John Calvin, *the Piety of John Calvin*, p. 122.

70) *Ibid.*, p. 123.

71) *Ibid.*, p. 124.

즉 결혼한 자들은 결혼하지 않은 자처럼 생활하라. 물건을 사는 자는 사지 않은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다.⁷²⁾ 두번째 규칙은 인내하는 마음과 평화로운 마음을 품고 가난을 견뎌내며 풍부한 재화를 규모있게 사용하라는 것이다. 특히 외면적인 일들에 대한 신자의 자유는 정해진 공식에 따라 제약을 받아서는 곤란하지만 가능한 한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일엔 관심을 적게 가져야 한다는 법칙만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⁷³⁾ 세번째 규칙은 지금 우리에게 위탁되어 있는 것도 어느 날인가 그것들에 대하여 회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잘 경영해야 하며 훌륭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모든 것들에 관해서 언젠가 반드시 회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⁷⁴⁾ 끝으로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을 주님의 소명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주님이 지정해주신 초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어리석음과 성급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들쭉서 놓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삶의 계층과 삶의 양식들을 구분해 놓으심으로써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해 두셨다 ... 주님은 그 같은 삶의 양식들을 '소명'이라고 이름지으셨다. 그러므로 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주님께서 지정해주신 초소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는 무분별하게 이곳저곳을 방랑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된다 ... 하나님의 소명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시초요 토대이다. 소명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바른 길을 걸을 수 없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완수할 수도 없다.⁷⁵⁾

72) *Ibid.*, p. 125.

73) *Ibid.*, p. 126.

74) *Ibid.*, p. 127.

75) *Ibid.*, pp. 127-128.

이와 같은 소명 즉 직업의 개념은 모든 사람들의 삶과 그 삶의 모든 면에 신성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⁷⁶⁾ 칼빈은 바로 이러한 직업적인 원리이다. 곤경을 받아들이는 것과 안일과 사치에 대한 애착의 억제와 근면한 생활에 대한 엄격한 요구를 결부시켰다. 그리하여 후기 저술가들은 이러한 것들을 수도원의 금욕주의와 구별하여 '세계내적 금욕주의'라고 평가했던 것이다.⁷⁷⁾

1. 칼빈의 신비주의

신비신학은 초월적 경험의 능력을 소유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존의 은사에 관심을 두었다. '신비'(mystical)라는 단어는 영혼이 신과 합일하기 위해 올라가는 것을 명명하기 위해서 위 아래로 바고 디오니시우스가 회랍어 *musterion*이란 단어에서 이끌어낸 말이다.⁷⁸⁾ 신비신학은 개인과 신과의 합일 경험을 묘사하는 것과 관계를 갖는데, 그것은 직접적이든 중개를 통한 관계이든 상관없다. 어린양의 혼인, 휘황찬란한 암흑(*the luminous darkness*), 심연 앞에서 적나라하게 된 영혼,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짐이란 표현들은 기도의 목표를 서술하는 것이다.⁷⁹⁾

윌리엄 제임스(W. James)는 그의 저서 『종교체험의 다양성』(*the Variety of Religious Experiences*)에서, 개인과 절대자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을 넘어서는 일이야말로 신비주의의 위대한 성취 가운데 하나다. 신비주의적 상태에서는 절대자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 됨을 의식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신비주의가 지속적으로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전통⁸⁰⁾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신비적으로 불릴 수

76) E. Doumergue, *op.cit.*, p. 58.

77) W. Beach?H. R. Niebuhr, *op.cit.*, p. 238.

78) U.T.Holmes III, *Spirituality for Ministry*, p. 50.

79) *Ibid.*, p. 51.

있는 의식 상태의 특성을 첫째 말로 다할 수 없음(ineffability), 둘째 인식론적 특성(noetic quality), 셋째 일시성(transiency), 넷째 수동성(passivity)의 네 가지⁸¹⁾로 설명하고 있다.

맥긴(B. McGinn)은 신비주의를 세 가지로 주제로 정리한다. 첫째, 신비주의는 구체적인 종교와 특별한 종교적 인격의 한 부분 혹은 한 요소이다. 둘째, 신비주의는 삶의 한 과정 혹은 방법이다. 셋째, 신비주의는 하나님 임재의 직접적 의식을 표현하려는 시도로 정리하면서,⁸²⁾ 모든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은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변화를 목적으로 즉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취자나 독자가 동일한 의식을 기대하거나 성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⁸³⁾ 이러한 신비주의는 특출한 개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성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으며, 기독교인의 근본적인 차원일 수 있으며, 신비한 요소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기독교인에게 존재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의 신비주의는 독특한 종류의 종교적 체험을 말하는데, 이 경우 신비주의는 신비한 연합을 통해 묘사된다.⁸⁴⁾

언더힐(E. Underhill)은 신비주의는 실제(Reality)와 합일을 이루는 기술(art)이며, 신비가는 다소간 합일을 이룬 사람, 또는 그러한 합일을 믿으며 그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⁸⁵⁾ 그녀는 신비한 체험은 대부분 전쟁과 재난의 때에 일어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파괴의 힘이 강한 것처럼 보일수록, 그것에 대항하는 영적인 이상(理想)은 더

80) William James, 『종교체험의 다양한 모습들』 김성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p. 449. *the Variety of Religious Experiences*.

81) *Ibid.*, pp. 412-413.

82) B. McGinn, 『서방 기독교 신비주의의 역사』 방성규·임성욱 역 (서울: 은성, 2000), pp. 19-20. *the Foundation of Mysticism*.

83) *Ibid.*, p. 21.

84) 정승훈, 『종교개혁과 칼빈의 영성』(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p. 20.

85) E. Underhill, 『실천적 신비주의』 최대형 역 (서울: 은성출판사, 2003), p. 31. *Practical Mysticism*.

강해진다. 신비의식은 전쟁이나 잔인함이 미혹할 수 없는 실제의 수준, 즉 어떤 재앙도 파괴할 수 없는 확신의 차원으로 들어올리는 힘이 된다고 하였다.⁸⁶⁾ 뿐만 아니라 그녀는 신비의식은 신비가들을 일상생활의 고통과 노력과 상관없게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신비의식은 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며, 인간의 영을 진정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자극제를 제공한다. 영원한 실체 위에 머무는 영은 완전한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보다 더욱 훌륭하게 인간이 겪어야 하는 혹독한 훈련을 잘 견딜 수 있으며, 그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⁸⁷⁾

칼빈의 생애를 살펴보면, 4세에 어머니 사망과 새어머니의 등장 그리고 얼마되지 않아서 아버지의 집으로부터의 격리, 14세에 파리 유학, 24세에 망명길, 그리고 계속되는 추방과 배신의 경험들로 점철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에게는 어머니, 아버지, 가정, 조국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평생동안 고난과 아픔과 뿌리가 없는 인생 길을 살아 왔다. 그의 자전적인 글에서 자신을 다윗과 동일시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윗은 시편기자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인물이다. 다윗이 겪었던 것과 같은 혹은 유사한 고난을 나도 교회 안에서 겪어 보았기 때문에 다윗의 슬픔을 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비록 다윗을 이르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그와 동등한 자가 되기에 못 미치지만, 다윗이 갖 추고 있는 온갖 덕목들을 마지 못해, 끌려가듯이 갈망하면서도, 다윗의 결점에는 아주 밀착되어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 이같은 반추의 과정을 통해 이 지극히 탁월한 왕이며 선지자인 다윗이 겪어야 하고 또 참아내야 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내가 따라야 할 본보기로 내게 주신 것임을 아주 명확히 깨닫게 된다.⁸⁸⁾

86) *Ibid.*, p. 23.

87) E. Underhill, *op.cit.*, p. 23.

88) John Calvin, *op.cit.*, p. 56.

칼빈은 그의 영성을 신자들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시작한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선물과 축복이 나온다. 그리스도와의 살아 있는 관계를 세례와 함께 시작되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해 가게 된다.⁸⁹⁾ 정승훈은 칼빈은 전통적인 영성에의 길, 즉 '정화-조명-일치'를 통해서 설명하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영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였다.

칼빈은 카톨릭의 신비주의의 영성의 단계들, 즉 정화-조명-연합의 단계를 루터처럼 십자가 신학으로 돌려놓기보다는 오히려 '연합의 단계'를 자신의 성령론적 출발점으로 삼아 영성에 대한 예전적-인격적 측면을 통합했다... 영적인 삶을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주도권, 은총의 주도권에 있다. 그러므로 영성의 삶의 영적인 진보 속에서도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완전(divinization)보다는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감사, 겸손, 종말론적 희망이 칼빈의 영성신학에 나타나는 특징이다.⁹⁰⁾

칼빈은 제3권 서두를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 : 무슨 유익이 이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며 무슨 결과가 따라오는가"로 시작하고 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주는 띠(bond)로서, 이 띠에 의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자기 자신과 효과적으로 연합하게 하신다.⁹¹⁾ 그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기독교인의 영성과 윤리의 근거로서 기술한다. 칼빈은 신비한 연합을 기독교적으로 표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과의 신비적 합일이란 측면이 같이 고려되기도 한다.⁹²⁾ 칼빈은 역사적 예수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89) Charles J. Healey, SJ, *Christian Spirituality: An Introduction to the Heritage* (New York: ALBA HOUSE), p. 237.

90) *Ibid.*, p. 17.

91) *Inst.* 3:1:1.

92) 정승훈, *op.cit.*, p. 67.

게 임재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찾아낸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 머물고 계시고 우리가 그와 분리되어 있는 한,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받으신 모든 고난과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서 여전히 무익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하여 우리의 소유가 되시고 우리 속에 거하셔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우리의 '머리'(엡 4:15)이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롬 11:17), '그리스도로 옷입는다'(갈 3:27)고 한다. 그 이유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와 한 몸이 되기까지 자라나지 않는 한 그가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이다.⁹³⁾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머리와 지체의 결합' 또는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표현한다. 그리스도에 접붙임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영적 유익함을 상속한다. 정승훈은 칼빈에게서 중요한 신학적 개념들, 예컨대 인의론, 성화론, 예정론, 그런가 하면 신앙, 기독교인의 영성은 이러한 신비한 연합을 통해 이해된다고 하면서, 칼빈에게서 신비한 연합은 합리적인 이해나 설명보다는 체험적이며 신비적이라고 하였다.⁹⁴⁾

칼빈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결혼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는 통상적으로 우리에게 대해 남편의 특성을 취하신다. 실제로 그가 우리를 교회의 품안으로 받아들일 때 자신과 하나로 묶는 연합은 상호간의 신실함 위에서 하는 신성한 혼인과 흡사하다(엡 5:29-32).⁹⁵⁾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니라(엡 5:30-31)라고

93) *Inst.* 3:1:1.

94) 정승훈, *op.cit.*, p. 67.

95) *Inst.* 2:8:18.

하고 나서 곧 “이 비밀이 크도다”(엡 5:32)라고 덧붙인 것은, 결혼이라는 상징 또는 비유를 들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만들어 주는 거룩한 연합을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이었다.⁹⁶⁾ 즉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가 되게 하고, 우리를 그와 하나가 되게 하는 저 거룩한 연합에 의해 동일한 사실이 보증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에 의해서만 자신을 우리와 연합시키신다.⁹⁷⁾

칼빈은 3권 2장에서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는 확고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이 신비적 연합의 동기는 자의적인 개발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시작된다. 칼빈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작은 역동적인 믿음생활을 위한 기초들이 된다.⁹⁸⁾ 드메르그(E. Doumergue)는 ‘칼빈의 주지주의와 신비주의’를 논하는 글에서 칼빈에게 있어서 신앙은 ‘신비한 연합’(unio mystica)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는 그 신앙의 연합을 풍부한 표현들과 고갈되지 않는 좋은 비유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가 그를 옷입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의 교제이고(communio)이고 결합이며, ‘우리가 그의 살 중의 살이 되고 뼈 중의 뼈가 됨으로써, 그와 하나가 되는 신성한 결혼이다.’⁹⁹⁾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의 방식으로 그를 먹지 않는다. . . 신앙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입맞추며, 그래서 그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안에 살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그와 일체가 되게 한다. 우리가 그와 공동생활을 하게 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와 하나가 되게 한다.¹⁰⁰⁾

96) *Inst.* 2:12:7.

97) *Inst.* 3:1: 3.

98) 유혜룡, “개혁주의 영성”. 교육교회(1994. 3.) p. 61.

99) E. Doumergue, *Le Caractere de Calvin*, pp. 68-69.

즉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조명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실 때, 동시에 우리를 자신의 몸에 접붙이셔서 우리로 모든 좋은 것에 참여하게 하신다.¹⁰⁰⁾ 뿐만 아니라 한 몸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구원을 기다리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멀리 나타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몸에 접붙이셔서 그의 모든 은혜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에서는 끊을 수 없는 교제의 유대로 우리와 연합하실 뿐 아니라 놀라운 영적 교제에 의해서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우리와 한 몸이 되시며, 마침내는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신다.¹⁰¹⁾

신비한 연합은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진실로 우리는 길 잃은 양들같이 흩어져서 이 세상의 미궁을 헤매고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모으셔서 자신과 연합하셨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거룩함이 그 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것은 우리의 거룩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교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굳게 결합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그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주입되어 그가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⁰²⁾

뿐만 아니라 칼빈은 인의론에서 오시안더의 본질적 의에 반대해서 전가된 의를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한다.

100) *Ibid.*, p. 69.

101) *Inst.* 3:2:35.

102) *Inst.* 3:2:24.

103) *Inst.* 3:6:3.

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비할 데 없는 선을 지닐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다. 그러므로 머리와 지체들의 결합, 즉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은 간단히 말해서, 신비로운 연합이며, 우리는 그것을 최고로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 그러므로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덧입고 그의 몸에 접붙여져야 하기 때문에, 즉 그가 우리를 당신과 하나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¹⁰⁴⁾

칼빈에게 칭의와 성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나타나는 두 가지 선물이다.¹⁰⁵⁾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써 그가 받은 은사를 우리도 공유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덧입고 그의 몸에 접붙여져야 하기 때문에, 즉 그가 우리를 당신과 하나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이처럼 칼빈의 신비한 연합은 그의 인의론과 성화론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에 접붙임이라는 표현 속에서 신앙과 성화와 칭의가 서로 연결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령의 능력을 통해 믿음으로 조명해 주실 때, 그분은 동시에 우리를 그분의 몸에 접붙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유익하고 선한 것들의 참여자가 되게 하신다.¹⁰⁶⁾ 그러나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믿음의 주인이라는 점에서, 신비한 연합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성령에 의한 부르심과 선택이 믿음에 앞서나가며, 그래서 칼빈은 선택을 '믿음의 어머니'라고 부른다. 칼빈적인 의미에서 신비한 연합은 성령을 통해 예정된 자들에게 허락된다.¹⁰⁷⁾ 이런 의미에서 칼빈의 영성은 세상 안에서 복종하는 윤리

104) *Inst.*, 3: 11:10.

105) Charles J. Healey, SJ, *op.cit.*, p. 237.

106) *Inst.* 3:2:25.

적 활동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지속시키면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간다.¹⁰⁸⁾

IV. 결론: 칼빈 영성의 특징들

칼빈의 금욕주의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 나타난다. 자기 부정은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초월하는 방식이다. 그렇다고 자기를 부정함으로써 저 세상적 수도원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영성이다. 이처럼 칼빈이 자기부인(self-denial)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아픔과 고난의 바닥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인생의 허무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족을 한없이 느낌으로 인해 겸허함과 겸비함을 깨닫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부정이란 자기 구원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부정이라는 자기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의 재물과 모든 만물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칼빈의 영성은 전인적인 영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칼빈의 신비주의 영성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방델은 인격적 만남이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으며,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축복과 선물을 받게된다. 칼빈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의 결혼관계'를 통해서 영성을 설명하였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신자들은 믿음의 확신을 체험하게 되며, 성화의 삶을 살

107) 정승훈, 『종교개혁과 21세기』, p. 153.

108) Charles J. Healey, *SJ, op.cit.*, p. 238.

아가게 되며 칭의의 선물을 받게 된다.

이러한 칼빈의 금욕주의적인 영성과 신비주의 영성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성령론을 다루고 있는 『기독교강요』 3권이다. 그러나 칼빈은 3권의 제목을 성령론이라 칭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금욕주의 핵심인 자기 부정이 바로 칼빈의 성화를 다루는 장이며, 신비주의는 3권 중에서 믿음과 회개와 중생, 그리고 성화와 칭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칼빈의 영성은 외적으로는 기독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면적으로는 성령론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됨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기와의 올바른 관계는 자기 부정을 통한 자기 극복과 자기 초월이며, 이 자기 초월은 이웃과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만물과 바른 관계를 지향하게 만든다. 아울러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확신있게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칼빈의 영성은 전인적이며 현실적이며 통합적인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